

지난해 국내은행 중국점포 당기순이익 급감

중국 경기둔화에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높아지고

위안화 가치도 하락... 2200만 달러로 80%

지난해 국내은행의 중국지역 점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9.2% 감소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및 현지화지표 평가 결과를 보면 중국 내 국내은행 점포의 당기순이익은 2200만 달러로 79.2%(8870만 달러)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국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높아지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5억7000만 달러로 전년(6억3000만 달러) 대비 9% 감소. 국내은행 총 당기순이익(3조4000억원)의 19.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이 6.7%(9100만 달러) 감소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22.8%(8500만 달러) 늘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곳은 홍콩으로 1억2200만 달러였다. 이어 미국(9300만 달러), 베트남(7200만 달러), 일본(6900만 달러) 순이었다.

점포 개수를 보면 지난해 국내은행들은 해외에 14개 점포를 새로 열고 9개 점포를 폐쇄, 38개국에서 점포 167곳을 운영했다.

국가별로 베트남(19개)으로의 진출이 가장 활발했다. 중국(15개)·미국(15개), 홍콩(11개), 일본(10개), 인도(9개), 영국(7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 지역의 점포가 112개로 전체 해

외점포의 67.1%를 차지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K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해외진출이 활발했다.

하나은행은 인도 첸나이와 베트남 호찌민에 지점을 열고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수라바야에 법인을 두바이에 지점을 신설했다.

기업은행은 인도 뉴델리와 필리핀 마닐라에 지점을 열고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무소를 시작했다. 산업은행은 중국 청도와 호주 시드니에 지점과 사무소를 개설했다.

수출입은행은 가나 아크라에 사무소를 신설했다.

전체은행으로 따져도 하나은행의 해외점포가 37개로 가장 많았고 수출입은행(25개), 신한은행(24개)·우리은행(24개), 산업은행(23개), 기업은행(13개), KB국민은행(12개)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881억9000만달러(약 101조771억원)로 전년 대비 8억6000만달러(1%) 증가했다.

이는 국내은행 총자산의 4.8%를 차지한다.

자산종류별로 보면 현금·예치금이 12억9000만달러 늘어난 156억5000만 달러, 은행 간 대여금은 12억7000만달러 증가한 62억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대출금은 375억4000만 달러로 11억5000만

달러 줄었다.

지역별 자산규모는 중국이 13억3000만 달러(6.1%) 감소했지만 205억7000만 달러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

미국이 139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미국의 해외점포 자산규모는 22.8%(25억8000만 달러)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그 뒤를 홍콩(112억2000만 달러), 영국(96억4000만 달러), 일본(79억6000만 달러)이 이었다.

국내은행의 현지화지표 종합평가등급은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한 2급으로 나타났다.

은행 현지화평가는 해외점포 현지화 수

준(70%)과 본점의 국제화 수준(30%)을 합산해 이뤄진다.

지난해 은행 본점의 국제화 등급은 3등급, 초국적화지수가 6.9%로 전년(5.5%)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해외점포의 평가등급이 1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국가는 2~4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체 해외점포의 수익성 지표가 다소 악화됐다"며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은행이 관련 리스크를 충실히 관리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진수기자



올림푸스, 산업 내시경 최상위 모델 출시

올림푸스한국이 산업 내시경 최상위 모델 IPLEX NX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림푸스의 산업 내시경 IPLEX 시리즈는 산업 설비, 배관, 항공기 엔진, 차량 부품 등 눈으로 직접 보기 힘든 곳의 부식·미세 균열을 발견하는데 쓰이는 비파괴 검사 장비다. 뛰어난 화질과 조작성으로 높은 장소나 불안정한 위치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도 효율적인 검사를 지원한다.

신제품 IPLEX NX는 전작인 IPLEX FX의 뒤를 잇는 IPLEX 시리즈 최상위 모델이다. 고해상도의 CCD와 고휘도 레이저 다이오드 광원, 혁신적인 펄사픽(PulsarPic) 이미지 프로세서로 시리즈 사상 가장 밝고 높은 화질의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가스 터빈 내부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한 관찰 화면을 얻을 수 있다.

두 개의 렌즈로 이미지를 구현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사 대상의 크기와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스테레오(Stereo) 측정 기능'이 크게 향상됐다. 전작과 비교해 측정 가능 영역이 약 4배 더 늘어났다. 물체 간 거리 측정을 위한 포인트도 기존 1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늘어났다.

조작도 편리해졌다. 기존 기계식으로 구부러지던 내시경 끝의 삽입부가 전동식으로 개선돼 원하는 관찰 부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사용자의 피로감을 줄이고 작업 시간을 단축했다.

/인진수기자

선거정보, 카톡·페북·트위터로 확인

#A씨는 투명한 선거 공보물 대신 모바일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고 총선 이슈는 포털 뉴스와의 푸시 알림으로 접한다. 선거 당일에는 각종 SNS로 개표 현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스마트폰이 선거 정보 입수 및 확인 풍경을 바꿨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모바일 앱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중요한 선거 정보 수단으로 떠올랐다.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앱(#) 검색에 총선 전용 코너를 만들었다. 카카오톡 앱 검색은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방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대화 입력창의 앱(#)버튼을 누르고 '총선' '투표소'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카톡 창을 벗어나지 않고도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개표방송은 카카오톡 연동 동영상 서비스 카카오톡V로도 볼 수 있다. 카카오톡은 SBS와 함께 카카오톡의 세번째 탭인 '채널'에서 개표 방송을 서비스한다.

선거 전용 모바일앱도 활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보'와 '선거법최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 정보, 사전투표율 등을 확인하고 부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선거 앱은 피스킬노트의 '우리동네후보'다. 이 앱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유명세를 탄 뒤 이번 총선에 맞춰 대폭 업데이트됐다. 네이버도 온라인 총선 서비스를 강화했다. 네이버는 우편으로 받아보던 '선거 공보물'을 포털 최초로 PC와 모바일로 제공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선거 공보물이 우편으로 발송되다 보니 분실 및 훼손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온라인 공보물 서비스를 통해 유권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후보자의 상세 정보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진수기자

저축은행 부실소송 승소율 높아

예금보험공사, 77% 누적 기록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3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7%의 누적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999~2002년 사이 경제위기로 촉발된 IMF시대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승소율(54.3%)과 비교해 22.7% 높은 수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예보의 평균 승소율은 59.4%였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주된 의혹은 횡령과 배임은 물론 한도초과 대출이나 부당연영행위를 행사한 대

출 또는 분식회계 등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초래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아울러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이날 서울지역 16개 파단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수행중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부실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대리인 위촉식을 열었다.

행사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불법·부당대출의 인정요건 및 부실책임추궁 범위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인진수기자

구독신청 288-9700

금감원, 효성 발행 BW 관련 탈세 여부 조사

(신주인수권부사채)

약 2000만 달러 규모 은닉 혐의

금융당국이 과거 효성이 발행한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탈세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지난 1999년과 2000년 발행한 BW에 관한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를 조사 중이다.

BW는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한 규모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보통의 사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고 만기에 상환을 받거나 주식으로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효성은 BW에 관한 해외 은닉, 불법 사용 등을 조사할 것을 지적받았다.

/인진수기자

앞서 효성은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BW를 통해 약 3000만 달러를 배당 받은 사실 등이 부각되면서 2013년 전담을 소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각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효성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4곳을 만들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87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이를 처분, 69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불법 증거까지 하면서 증거세를 포탈한 규모가 70억원 가까운데 금감원은 회계 감사인 주석만 믿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효성이 배당 받은 부분 이외의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BW에 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진수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